

# 미디어아트에 담은 '기후, 환경, 자연'

### 광주문화재단 입주작가 결과 전시, 23일까지 미디어338 이태현·강수지&김용원·김은경&이뿌리 등 5명 작가 참여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낯선 상황에 처해졌다. 특히 창작을 하는 작가들은 전혀 생소하거나 낯선 환경과 조우해야 했다. 특히 창작활동은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여정이자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와 같다. 그러한 점에서 환경은 작가의 존재 이유와 창작의 방향을 규정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미디어아티스트들이 이전과는 다른 창작환경을 모티브로 자전적인 기록을 작품에 담아내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 제10기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 5명의 결과보고 릴레이 전시 '나의 기록\_My Document'가 그것.

작가들은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환경과 공간, 자연, 나 자신의 기록을 작품에 투영했다. 오는 23일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미디어338 전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사전 접수 없이 현장 관람이 가능하다.

강수지&김용원 작가전(1~5일)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전시를 진행한다. 먼저 강 작가의 '명상을 위한 만들기\_Still Life' 연작은 코로나 이후 대두된 생애주기 근원을 돌아본다. 정물사진 속 오브제들은 모두 살처분 현장에서 수집했으며 정제된 사진은 우리의 선택이 세상을 만든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김 작가의 'The Reflection of inner-side ; Mudeungsan'은 광주의 산수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보여준다. 작가는 과거와 현대의 접점에서 바라본 산수의 반영(反映)을 기록하면서 과거의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의 렌즈를 제시한다.

김은경&이뿌리 작가전(16~23일)은 각각 환경에 대한 정점, 반복된 몸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김 작가는 'Sit on the fence' 시리즈를 통해 환경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을 제시한다. 반면 이 작가가 선보이는 '선산(先山)'은 단순한 노동과 무수한 반복들의 잊혀지지 않는 기록을 이야기한다. 선산에서 이루어진 조부의 장례식에서 펼쳐지는 대화를 모티브로 반복된 몸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이에 앞서 이태현 작가는 주변과 목적지로 향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 'Log'를 전시해 호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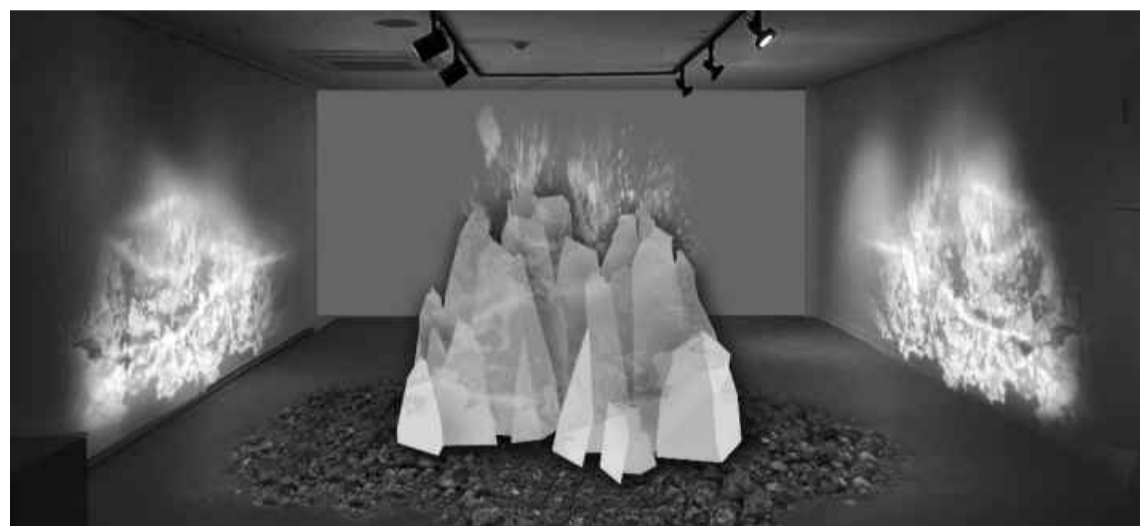
한편 제10기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 5명은 지난 4월부터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층에 위치한 레지던스 공간에서 미디어아트 작업 활동을 해왔다. 입주



강수지 작 '명상을 위한 만들기\_Still Life'

작가 5명에게는 각 1개씩 레지던스 공간(창작공간 스튜디오)이 제공됐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5일은 제외). 문의 062-670-7456, 797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용원 작 'The Reflection of inner-side ; Mudeungsan'

## "전두환 죽었어도 5·18 진실은 죽지 않는다"

### 나의갑 전 5·18기록관장 '전두환의 광주폭동이라니요?' 출간

"전두환은 죽었어도 5·18의 진실은 죽지 않는다. 지금의 우리가 5·18 가해 중심자인 '전두환의 5·18'을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생전에 그가 '전두환 회고록'에 담아 놓았던 조각의 5·18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익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5·18을 다룬 책은 많지만 '전두환의 5·18'을 전면에 내세운 책은 없었다. 전두환을 '광주학상 최종 책임자'로 단정하면서도 알고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광주 5·18 당시 사회부 기자였던 나의갑 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이 '전두환의 광주폭동이라니요?'(삼미란)를 펴냈다. 지난 23일 전두환 씨가 사망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또한 역사의 뒷장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저자는 5·18 발발의 계기가 된 전남대 정문 앞 충돌부터 시작해 5월 27일까지 5·18 과정을 지켜보며 취재수첩에 기록했다. 그러나 당시 기사는 광주 505보안부대의 검열로 게재되지 못했다.

이번 책은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구성

돼 있다. 한마디로 전두환을 '전문으로' 취급한다.

책은 '전두환의 5·17 사전모의 행적'과 '전두환의 5·18 행적'을 들춰냄으로써 그를 가해 중심자 위치에 되돌려놓는다. 나아가 그가 '5·18 총사령관'이자 5·18이 광주시민의 폭동이 아닌 '전두환의 광주폭동'임을 역설한다.

저자는 "5·18은 오래된 현재이고 전두환은 잊힌 과거가 돼 버렸다. 그의 손에 묻힌 광주의 피가 얼마인 데 한 점 사죄나 반성도 없이 그는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다"며 "5월 광주에 대한 '광주폭력'은 지금도 한도 끝도 없다. 2차 폭력으로 광주는 41년째 고통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테너 안세권과 함께 토크콘서트 6일, ASA커피랩 3층 아트홀

테너 안세권(사진)과 함께하는 청춘 토크콘서트가 오는 6일 오후 7시 ASA커피랩 3층아트홀(광주시 서구 치평동 1195-6)에서 열린다.

문화중심도시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토크콘서트는 문화도시 오픈스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오픈스쿨은 광주가 문화도시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가기 위해 알아야 할 문화예술 주요 트렌드와 핵심 지식, 정보들을 주제로 진행되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과 묻고 답하는 소통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사인 테너 안세권은 JTBC팬텀싱어 파이널, tvN 'Korea got talent 2'에 출연해 화제를 불러모은 바 있다. 문의 062-611-204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orean Jazz All Stars' 공연이 오는 4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 한해 마무리하는 재즈 라이브

### 'Korean Jazz All Stars', 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재즈 공연과 함께 올해를 마무리 해보는 것은 어떨까.

'Korean Jazz All Stars' 공연이 오는 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박수용(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교수를 주축으로 구성된 재즈오케스트라 'Korean Jazz All Stars'는 색소폰 신동진, 기타 방병조 등 25명의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다.

이번 음악회는 2021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호남을 대표하는 곡인 '복표의 눈물' 등을 재즈오케스트

라로 편곡해 들려주며 지휘자가 지명하는 솔로주자들의 즉흥연주도 펼쳐진다.

레퍼토리는 조 자비늘의 '버드랜드', 칼 스트로먼의 '빅 밴드 크리스마스', 제리 노윅 '크리스마스 노래', 도메니코 모두뇨의 '블레로',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더 치킨', 칩 코리아의 '스페인', 프레디 머큐리의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등이다.

무대에는알토 색소폰 이진우·김동범·김지수, 테너 색소폰 이경구·신명섭, 트럼펫 최규민·김경훈, 트럼본 김민수·정혜원, 플루트 김선정, 재즈피아노 강윤숙, 드럼 원익준 등이 오른다. 문의 010-6693-572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영국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 광주시향, 2일 광주문예회관...하피스트 방선영 협연

광주시향교향악단(예술감독 홍석원) GSO 오타움 콘서트 VII '영국음악여행'이 2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 주제는 '영국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클럽 발코니 편집장이자 음악칼럼니스트 이지영이 해설을,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연이 지휘를 맡았으며 하피스트 방선영이 협연한다.

첫 무대는 멘델스존이 평갈의 동굴과 바다의 풍광에 매료돼 작곡한 '평갈의 동굴' 서곡으로 연다. 이어 KBS-1FM의 시그널과 일기예보 배경음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헨델의 '하프 협주곡'을 하피스트 방선영 협연으로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하이든이 영국을 여행하면서 작곡한 '교향곡 제104번'을 들려준다. 하이든은 영국에 머무르는 동안 교향곡 99번부터 104번까지 12곡을 작곡했는데, 이중 마지막 교향곡인 104번은 '런던'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피스트 방선영은 체코 야나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 및 정기연주회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이후 상트페테르



하피스트 방선영

부르크 TV &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전석 1만원.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예매. 문의 062-524-508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im e Bsong Solar Energy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